

공중파방송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편성현황과 개선방안

박창희*

목 차

- I. 서론
- II. 연구목적
- III. 연구문제
- IV. 연구방법
- V. 분석결과
- VI. 문제점 및 개선방안
- VII. 맺음말
- 참고문헌

I. 서론

최근 우리는 입을 모아 영상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공중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등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살면서 기존의 공중파만을 접했던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자각의 어린이·청소년들은 영상이미지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는 가운데에 놓여 있다. 따라서 부모나 선생님, 친구의 말보다 텔레비전에서 보여 지는 말이나 행동은 어린이·청소년들의 지표가 되며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텔레비전이 “제3의 부모” 또는 “제5의 계절”이라고 호명되는데서 짐작하듯, 텔레비전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부모나 계절 변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어떤 미디어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텔레비전은 다른 어느 텔레비전 시청자들 보다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강력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

*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역사적으로 텔레비전이 어린이·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나 관련 업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특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뉘어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어린이·청소년에게 미치는 텔레비전 영향에 관한 연구는 영국에서 Himmelweit(1958) 등에 의해 실시된 Nuffield 조사와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한 Schramm(1961) 등의 연구로 인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로 언급했으며, 긍정적인 면은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해명이나 방어적인 입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입장이 어떻든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은 상업성을 떠나 그들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풍부한 정서함양과 건전한 오락문화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제는 분명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이유들로 방송이 시작된 이후 끊임없이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을 비롯한 문제제기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993년 5월 12개국의 대표가 〈빈헨 국제 텔레비전 청소년상(PRIX JEUNESSE)〉 원탁회의에서 제안되었던 제1회 〈텔레비전과 어린이에 대한 세계회의(World Summit on Television and Children)〉가 1995년 호주의 멜버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목적과 많은 결과물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자는데 목소리를 같이 하면서, 특히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텔레비전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있었으며, 이를 위해 정책규제, 제작자, 수용자간에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텔레비전과 어린이에 대한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어린이 텔레비전 현장’에 따르면, 수용자의 측면에서 첫째, 어린이는 그들의 욕구, 관심, 흥미, 문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하며, 둘째, 그들이 시청하기에 적절한 정기적인 시간대를 제공받고, 제작자의 측면에서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장르와 내용에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정부나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지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방송위원회, 1995). 이는 텔레비전이 어린이·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현장에서의 새로운 인식 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시켜주었던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일본의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에서는 2001년 9월 미국에서 발

생한 테러사건 이후, 보도 및 뉴스 프로그램의 영상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들이 '놀람과 공포' '하늘이 무섭다' 등의 답변을 했으며, '권총놀이'와 '폭발놀이'가 현저히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테러 사건에 대한 텔레비전 보도가 얼마나 어린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시 ABC 방송에서는 비행기가 건물에 충돌하는 장면이나 건물이 붕괴되는 영상을 자제하는 등 미국 방송 기관이 어린이를 위한 대응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근 들어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접어들면서 특히 텔레비전이 어린이·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기존의 제한된 채널에서 다양한 채널로부터의 노출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이며, 이는 또한 기술의 발달로 비동시성의 현상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이 편리한 곳에서 편리한 시간에 비디오나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어린이·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미디어 노출 시간, 즉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듯이 그들이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만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용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시청시간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텔레비전의 내용이 상업성으로 인한 시청률을 지나치게 인식한 나머지 점점 내용면에서 범죄물, 선정물, 폭력물 등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텔레비전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프로그램 등급제 및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어린이·청소년 시간대를 설정, 제시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어린이 텔레비전법>을 입법청원 한 바 있다.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은 그 사회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형성되는 그들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제작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업적이고 획일적이며 천편일률적인 형식과 내용을 담고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은 그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들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사회적인 책임 하에 보호되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텔레비전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궁극적인 대책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II. 연구목적

텔레비전과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 동향을 요약하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텔레비전 시청행태나 유형에 관한 연구, 둘째, 텔레비전이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셋째,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넷째,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들 중 빈번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로는 텔레비전으로부터 노출되는 어린이·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어린이·청소년들이 텔레비전에 나타난 폭력물을 시청하면서 관찰 학습을 통하여 공격성향을 모방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많은 실험 연구를 통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폭력이 증가되는 횟수와 잔인한 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위와는 상반되는 주장으로, 인간은 원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존재로서, 이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공격적 성향을 환상이나 백일몽을 통해 감소시키고 공격의 표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텔레비전 폭력물에 계속 노출되어 온 어린이·청소년은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에 냉담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간의 중독적인 성향은 쾌락의 정도가 점점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의 폭력물도 날이 갈수록 공격성이 더욱 강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어린이·청소년을 폭력에 대해 무감각상태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청소년이 폭력물을 보았다고 해서 그대로 모방한다는 자극과 반응의 상태에서 심각성을 고려하기 보기보다는 어린이·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정환경, 개성, 준거집단, 심리적 요인 등 자극과 반응 사이에 중개변인인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은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텔레비전의 폭력물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텔레비전이 어린이·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중파방송에서 방영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현황과 추이를 살펴보면서, 작금의 우리나라 어린

이·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현주소를 알아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선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텔레비전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많았으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얻어진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해 기본적인 인식에만 그치고 실질적인 방향이나 대안을 제시하는데 미흡했던 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시간대에 적절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들이 어느 한 장르에 치우쳐 있는가,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떠한가,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내용분석을 통해 알아본 후, 마지막으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및 제작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III.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추이와 특성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공중파방송에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편성현황과 전반적인 편성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공중파방송에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유형을 장르별로 구분한 후 장르별 편성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공중파에서 어린이·청소년에게 특히 노출이 과다한 애니메이션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제작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한가?

IV. 연구방법

본 연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관한 방송

위원회의 보고서 및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공중과 채널인 KBS1, KBS2, MBC, SBS, EBS를 비롯한 주간편성표를 중심으로 편성현황을 알아본 후, 각 장르별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선별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보다 자세한 편성현황을 분석하고 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특징까지 포함되어야 하나, 수집 가능한 자료의 한계 상 실제 프로그램 운행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각 방송국의 프로그램 담당자로부터 자료수집과 인터넷으로 구입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먼저, 편성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대상인 각 채널들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2002년 7월 8일부터 2002년 7월 14일까지의 주간편성표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설정한 장르 기준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녹화분석 하였다.

어느 것을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는 가는 정확한 기준과 연령별 시청률 자료의 부재로 어린이·청소년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원칙적으로 방송사와 제작사가 어린이·청소년 시청자를 대상으로 편성, 제작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며, 또한 그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 모든 경우 어린이·청소년의 연령은 유아부터 18세 이하를 어린이·청소년으로 정하고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은 일주일 간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중 모든 프로그램들을 분석할 수 없어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등장인물, 서사구조, 주제 등을 통하여 어떠한 내용을 어린이·청소년에게 전달하였는가를 조사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분류 방식은 다양하며 또한 분류 기준이 모호하여 각 프로그램이 연구 목적이나 경우에 따라 달리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다큐드라마, 정보오락 등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한 장르로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안정임, 송현경과 전경란(1993)은 프로그램 장르를 구분하는데 있어 기존의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형식과 내용, 대상, 제작 주체 등의 세분화 분류 기준을 이용하여 뉴스, 다큐멘터리, 대담 및 토론, 드라마, 코미디, 영화, 만화와 인형극, 버라이어티 쇼, 토크 쇼, 퀴즈와 게임, 스포츠, 생활정보, 학습, 문화예술, 광고, 기타로 프로그램을 16가지의 장르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는 달리 주제, 대상 그리고 시청 시간대가 한정되어 있는 이유로 다른 장르 분류가 필요하

다. 물론 많은 학자나 관련업계에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일반적인 유형 분류와는 다르게 분류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으로는 분류하기 어려운 문제점으로 인해 방송위원회 보고서(1996)는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하여 14가지 유형으로 축소하여 분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시 재분류하여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주제, 대상, 시청 시간대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9가지 유형별로 장르를 분류하였다.

V. 분석 결과

1. 채널별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주간편성현황

먼저 공중파 채널, KBS1, KBS2, MBC, SBS, EBS 주간편성표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오전 7시 45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는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으며, 오후에는 4시05분부터 6시 35분까지 취학 전 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EBS를 제외하고는 극히 소수의 프로그램에 불과했다. 주중 오전 시간대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KBS1 〈TV 유치원 하나 둘 셋〉과 KBS2의 〈만화동산〉을 제외하고는 MBC와 SBS에서는 전혀 어린이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오후시간대는 오전에 비해 KBS1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KBS1의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 KBS2의 〈어린이 뉴스탐험〉, MBC의 〈뽀뽀뽀〉, 〈내 친구들의 세상〉, 〈자연은 살아 있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애니메이션으로 장르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널비교에서는 오후 4시 30분에 KBS2와 MBC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서로 중복 편성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말 편성에 있어서는 KBS1에서 3편과 KBS2의 1편을 제외하고는 MBC와 SBS에서는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이 전혀 편성되고 있지 않았다.

각 채널별 특성을 살펴보면, KBS1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TV 유치원 하나, 둘,

셋)을 주중 오전에 편성하고 있으며, 오후에는 애니메이션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다른 공중파채널과는 다르게 다큐 장르인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로 줄떠편성을 하고 있다. 특히 주말에도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3편 편성하여 다른 공중파에 비해 주중과 주말에 균형적인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2의 경우, 주중 오전시간대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오후시간대는 KBS1과는 다르게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외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주말에는 오전시간대 어린이 프로그램 1편을 방영하고 있다. MBC는 주중 오전시간대에는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이 전무했으며 KBS보다는 빠른 오후시간대에 교육/학습, 매거진을 비롯한 애니메이션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주말에는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이 전무했다. SBS의 경우도, 주중 오전시간대와 주말에는 MBC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이 없으며, 오후 시간대는 애니메이션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한편 교육채널인 EBS에서는 오전시간대에 KBS1의 교육/학습 프로그램인 〈TV 유치원 하나 둘 셋〉이 7시 45분에 방송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그 시간대를 피해 8시 10분에 그 프로그램과 유사한 〈딩동댕 유치원〉이 편성되어 있어 중복 편성을 피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이른 아침 시간대는 취학 전 어린이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고, 오후에는 초등학교, 저녁시간대는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에 있어서도 앞의 다른 공중파 채널과는 다르게 하나의 특정한 장르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중파 중에서는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있어 편성시간과 대상, 장르면에서 차별화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과 주말 편성에 있어서도 주말 오전시간대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인 애니메이션을 집중 편성하다가, 오후나 저녁 시간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학습이나 다큐멘터리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방송위원회 보고서(1997a)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번 공중파 주간편성표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들은 첫째, 주중 오전시간대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KBS1과 EBS를 제외하고는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이른 아침에 많은 어린이가 시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전시간대에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시간을 늘려야 하며, 또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과 적절한 시간대에 대상별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둘째, 오후시간대에 있어서는 아침시간대보

다는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이 늘기는 하였으나, 채널 간 장르의 중복 편성을 비롯하여 소수 장르를 집중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니메이션의 편성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다양한 장르 편성이 요구된다. 셋째, 어린이·청소년이 주중보다는 주말의 시청시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주중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편성시간을 주말에도 늘려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주말에는 각 채널별로 시청률 등을 감안하여 성인용 드라마의 재방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의도적으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을 기피하여, 결국 주말에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성인용 프로그램의 노출을 지나치게 조장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편성상에 있어 어린이·청소년 시간대의 정확한 시간대 설정과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시간대 조정이 제기된다. 위의 편성현황을 분석해 보면, 어린이 프로그램인 애니메이션이나 인형극 등의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으나, 진정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장르나 종류를 분간할 수 없어 성인용 프로그램인지 청소년 프로그램인지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시청시간대가 점점 늦은 시간대로 이동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청소년을 위한 편성시간대를 조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 KBS1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주간편성표

기간 : 2002년 7월 8일 ~ 7월14일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TV유치원 하나, 둘, 셋									
7	45								
8	05								
접속! 어른들은 몰라요									
10	10								
11	00								
열려라 동요세상									
13	10								
14	00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									
17	20								
	45								
도전 골든벨									
19	10								
20	00								

〈표 2〉 KBS2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주간편성표

기간: 2002년 7월 8일 ~ 7월14일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	50							만화동산	
8	40								
16	30	스필버그의 어메이징 스토리				사브리나			
17		바니와 친구들				어린이 뉴스탐험			
	30	매직키드 미수리							
18	30	디지털 테이머즈			우정의 그리운드	바다의전설 장보고			

〈표 3〉 MBC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주간편성표

기간 : 2002년 7월 8일 ~ 7월14일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6	05	뽀뽀뽀			내 친구들의 세상			
17	30 00	아틀란티스의 왕자	도라에몽	보거스는 내 친구	킬타의 영웅들	자연은 살아있다		

〈표 4〉 SBS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주간편성표

기간 : 2002년 7월 8일 ~ 7월14일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6	05	짱이와 깨모							
	15								
	35	춤추는 빅베어							
17	45	방가방가 햄토리	파워 퍼프 걸	포켓 몬스터					
18	10	로봇용사 다그온			큐빅스	해로와 토레미			
35									

〈표 5〉 EBS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주간편성표

기간 : 2002년 7월 8일 ~ 7월 14일

시	분	월-08	화-09	수-10	목-11	금-12	토-13	일-14	분	시
06	20								20	06
	40								40	
07	10								20	07
	25	사랑해 클리포드								
	45	트윈니스(재)								
08	10	리그레츠(재)	우바우바 마수릴리미(재)	티모시네 유치원				신나는고양이 식당	10	08
	30	딩동댕유치원				8:30		Small Potatoes(재)	30	
	40	과학 놀이터(재)	몽몽 인형극장(재)	돌아온 그린앵(재)			얼룩송아지 코니(재)	코일라틴지 아치볼드(재)	55	
	50	만들어 볼까요(재)	속속썩썩 그러요(재)	바나나를 탄 끼끼(재)			9:00	이끼로랑이(재)		
09	30	방귀대장 뽕뽕이(재)						모여리당동맹 매기와 환상의 나라로(재)		09
								재 EBS 장박워즈		
10	30	한글탐정 돌리						Small Potatoes 데카의 열애 세상	30	10
	40	용을나라로 떠나요(재)						TV로 보는 원작동화(재)		
11	05	개구쟁이 할재 픽스와 피자						요리조리 광광(재)		11
	30	당동댕 유치원(재)						춤추는 소녀 외과(재)	30	
	50	방귀대장 뽕뽕이(상)			바나나를 탄 끼끼(재)				10	12
12	00							우주과학이(재)	30	
13										
14	40									
15	30	잇 등화책이 움직이네								
	40	내 친구 아서								
	30	과학놀이터	몽몽 인형극장	돌아온 그린앵			재연 다류엔터(재)			14
16	05	만들어 볼까요	속속썩썩 그러요	나랑웃기라 칭 되어. 뭐야?			16:10			15
	25	트윈니스								
	45	음악이 즐린다		뽀뽀뽀뽀				세계명작민화 장공의왕자 타잔	20	16
	50	방귀대장 뽕뽕이			바나나를 탄 끼끼			그리스 로마 신화-전설의 수호자(재)		
17	20	딩동댕 유치원(상)						모여리당동맹(재)	10	17
	30	매기와 환상의 나라로		얼룩송아지 코니				자연의신비		
	45	아이무의 요술굴방	카슬기로운생활	카스카르다 아라벨	카즐거운생활	카이민이 사냥뉴스			40	
	50	초등3년 영어	초등4년 영어	초등5년 영어	초등6년 영어	차이 미음이 보인다!		TV신기문 나의부모님(재)		
18	15	이누크		차초등 사회					20	18
	30	재 과학의 눈		재 초등 실과						
	55	아 리그레츠	우바우바 마수릴리미	코일라틴지 아치볼드				학교이야기(재)		
19	25	요리조리 광광	춤추는 소녀 외과	퀴즈 친화동일				TV로 보는 원작동화		19
	50	그리스 로마 신화-전설의 수호자들		오박오박 유랑이(재)				익동클럽		
20	30	재 TV신기문 나의 부모님		재 학교이야기				현장기획 (신나는 학교)(재)	50	20
21	20	현장기획 (신나는 학교)							40	21
22	50	과학 다류엔터(재)	자연 다류엔터(재)	(시사다큐) 움직이는세계	2차대전사	특선 다류엔터(재)			20	22
23	30	EBS 수능특강								23

2.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 비율 분석

분석 대상이 된 공중파 방송에 대한 각 채널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아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채널 별로 매우 다양한 현황을 보이고 있다. KBS1, KBS2, MBC, SBS, EBS에서 방송된 총 방영시간은 분석된 기간동안 재방송을 포함하여 37,045분으로 그 중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수로는 98편이며, 방송 시간은 5,395분으로 1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교육방송인 EBS가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53.0%를 방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다른 4개의 채널에서는 3%~8%정도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비율이 총 방송시간에 비해 대단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주중과 주말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방송시간을 살펴보면 주중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채널별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 채널인 EBS가 채널 특성상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총 방송시간 6,980분 중, 3,700분(53.0%)으로 가장 많은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며, 이어 KBS2가 7,590분 중, 650분(8.6%)으로 많으며, KBS1이 7,565분 중, 395분(5.2%), SBS가 7,370분 중, 375분(5.1%), 그리고 MBC가 7,540분 중, 275분(3.6%)으로 가장 적은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즉,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의 양과 총 방송시간 중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EBS>KBS2>KBS1>SBS>MBC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육채널인 EBS를 비롯하여 공영방송인 KBS1, KBS2가 총 방송 시간에 비해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편성량과 편성비율에서도 역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MBC는 SBS에 비해서도 약 100분 정도 적은 편성으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가장 적게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현황의 채널 간 비교에서 두드러진 것은 주중과 주말 편성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은 주말보다는 주중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MBC와 SBS는 주말에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BS2도 주말대비 92.3%를 주중에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BS1은 주중 57.0%, 주말 43.0%로 타 채널들에 비해서는 주중과 주말에 균형 있는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방송인 EBS 채널을 제외한 공중파 방송은 총 방송시간에 비해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중, 주말 편성비율에서도 KBS1를 제외하고는 주중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균형적인 편성전략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주말 시청시간이 주중에 비해 두 배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MBC와 SBS가 주말에 한편도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지 않은 것은 주말에 시청률을 지나치게 의식할 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표 6〉 공중파방송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분(%)

방송사	편수	총방송시간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방송시간	비율	평일비율	주말비율
KBS 1	5편	7,565분	395분	5.2%	225분(57.0%)	170분(43.0%)
KBS 2	12편	7,590분	650분	8.6%	600분(92.3%)	50분(7.7%)
MBC	9편	7,540분	275분	3.6%	275분(100%)	.
SBS	10편	7,370분	375분	5.1%	375분(100%)	.
EBS	62편	6,980분	3,700분	53.0%	3,100분(83.8%)	600분(16.2%)
합 계	98편	37,045분	5,395분	14.6%	4,575분(84.8%)	820분(15.2%)

또한 방송위원회 보고서(2001)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현황 및 내용분석에 따르면, 지난 99년 가을부터 2001년 봄까지의 총 방송시간은 매년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

서를 내놓았었다. KBS2의 2000년 가을, MBC의 2001년 봄, SBS의 2000년 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감소 현상을 나타냈는데, 역시 이번 분석에서도 각 채널별 총 방송시간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포함하더라도 편성비율은 모든 채널에서 감소했다. 특히 KBS2와 MBC는 2001

〈표 7〉 공중파방송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 추이 비교

단위: 분(%)

		주간 총 방송시간 (분)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시간 (분)	편성비율(%)
KBS 1	99' 가을	6,355	540	8.5
	00' 봄	6,275	445	6.6
	00' 가을	6,325	375	5.9
	01' 봄	6,890	385	5.6
	02' 봄(7월)	7,565	395	5.2
KBS 2	99' 가을	6,480	1,105	17.1
	00' 봄	6,280	650	10.4
	00' 가을	6,620	915	13.8
	01' 봄	7,070	740	10.5
	02' 봄(7월)	7,590	650	8.6
MBC	99' 가을	6,780	550	8.1
	00' 봄	7,240	450	6.2
	00' 가을	7,180	355	4.7
	01' 봄	7,065	425	6
	02' 봄(7월)	7,540	275	3.6
SBS	99' 가을	6,780	450	6.6
	00' 봄	6,805	475	7
	00' 가을	7,180	475	6.6
	01' 봄	7,105	375	5.3
	02' 봄(7월)	7,370	375	5.1

출처: 〈어린이 프로그램 현황 및 내용 분석〉, 2001, 8. 방송위원회 심의 평가실, 재구성

년에 비해 각각 1.9%와 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9년 가을에 비하면, 거의 50%이상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이 줄어들었다. 이는 채널별 방송시간의 증가가 반듯이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편성증가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직도 방송사는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장르별 편성현황

공중과방송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장르별 분석결과는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EBS를 포함하여 애니메이션이 1,850분으로 전체의 34.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EBS를 제외하면, 745분으로 43.2%가 애니메이션 장르로 비중이 더욱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학습 프로그램이 총 1,830분, 33.9%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EBS가 1,635분을 방송하고 있어 실제로는 KBS1과 MBC에서만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다큐멘터리로 685분, 12.7%를 차지하고 있다.

EBS를 포함한 전체적인 장르 순위는 애니메이션(34.3%)>교육/학습(33.9%)>다큐멘터리(12.7%)>드라마(6.1%)>매거진(3.5%)>퀴즈/게임(3.2%)>외화(2.8%)>인형극(2.6%)>버라이어티쇼(0.9%)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채널인 EBS를 제외하고서도 이와 유사한 장르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애니메이션(42.2%)>교육/학습(11.5%)>다큐멘터리(9.1%)>드라마=외화(8.9%)>매거진(7.7%)>인형극(5.9%)>버라이어티쇼=퀴즈/게임(2.9%)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BS를 포함한 공중과방송의 장르는 애니메이션과 교육/학습 프로그램이 커다란 비중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EBS를 제외하면, 애니메이션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채널별 현황을 보면, KBS1이 9개의 장르 중 5개의 장르를 방송하고 있어 다른 채널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다양한 장르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SBS는 2개의 장르만(애니메이션, 인형극)을 방송하고 있어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에 지나친 장르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KBS1의 경우 공영방송의 특성을 잘 나타내 듯, 다큐멘터리(31.6%)와 교육/학습(30.3%) 장르가 큰 비중을 차

지하며 매거진, 버라이어티쇼, 퀴즈/게임에서도 균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다른 채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드라마나 외화 등은 한 편도 방송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KBS2는 9개의 장르 중 4개의 장르를 편성하고 있는데, 그 중 애니메이션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드라마, 외화 그리고 매거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MBC의 경우도 4개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시 애니메이션이 43.6%로 가장 높으며, 교육/학습, 매거진, 다큐멘터리 순으로 되어 있다. SBS는 애니메이션(73.3%)과 인형극(26.7%)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공중파 채널 중 지나치게 집중된 장르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EBS와 KBS1을 제외하고는 장르 편중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애니메이션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EBS에서도 교육/학습과 애니메이션 두 장르의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으로 분석되어 각 채널별 장르의 다양화와 특성 장르 편중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어지는 바이다.

〈표 8〉 공중파 방송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장르별 편성현황

단위: 분(%)

채널 장르	KBS 1	KBS 2	MBC	SBS	소 계	EBS	계
매거진	50분 (12.7%)	30분 (4.6%)	50분 (18.2%)		130 (7.5%)	60분 (1.6%)	190분 (3.5%)
다큐멘터리	125분 (31.6%)		30분 (10.9%)		155분 (14.3%)	530분 (14.3%)	685분 (12.7%)
드라마		150분 (23.1%)			150분 (8.7%)	180분 (4.9%)	330분 (6.1%)
외화		150분 (23.1%)			150분 (8.7%)		150분 (2.8%)
애니메이션		320분 (49.2%)	120분 (43.6%)	275분 (73.3%)	745분 (43.2%)	1135분 (30.7%)	1850분 (34.3%)
인형극				100분 (26.7%)	100분 (5.8%)	40분 (1.1%)	140분 (2.6%)
버라이어티쇼	50분 (12.7%)				50분 (2.9%)		50분 (0.9%)
퀴즈/게임	50분 (12.7%)				50분 (2.9%)	120분 (3.2%)	170분 (3.2%)
교육/학습	120분 (30.3%)		75분 (27.3%)		195분 (11.3%)	1635분 (44.2%)	1830분 (33.9%)
계	395분 (22.9%)	650분 (37.7%)	275분 (15.9%)	375분 (21.7%)	1,725분 (100%)	3700분 (100%)	5395분 (100%)

또한 〈표 9〉는 공중파방송의 장르별 평일과 주말의 편성비율을 분석하였는데, KBS1의 경우 평일에 다큐멘터리와 교육/학습, 두 장르에 치중하는 반면, 주말에는 매거진, 버라이어티쇼, 퀴즈/게임, 교육/학습 등 다양한 장르를 방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시 주말에는 오락 프로그램 성격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가족

간의 시청을 유도하는 장르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KBS2는 오히려 평일에는 4개의 장르를 편성한 반면, 주말에는 오직 1개만을 편성하였으나, 장르 중에서 평일에 압도적으로 편성되었던 애니메이션의 비중을 대폭 줄이는 반면, 드라마를 편성하여 전 가족이 시청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들이 주말의 시청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MBC와 SBS

〈표 9〉 공중파 방송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장르별 평일, 주말 편성 비율

단위: 분(%)

채널 장르	KBS 1		KBS 2		MBC		SBS		EBS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매거진		50분 (12.7%)	30분 (4.6%)		50분 (18.2%)				30분 (0.8%)	30분 (0.8%)
다큐멘터리	125분 (31.60%)				30분 (10.9%)				410분 (11.1%)	120분 (3.2%)
드라마			150분 (23.1%)						110분 (3%)	70분 (1.9%)
외화			150분 (23.1%)							
애니메이션			270분 (41.5%)	50분 (7.7%)	120분 (43.6%)		275분 (73.3%)		875분 (23.6%)	260분 (7%)
인형극							100분 (26.7%)		40분 (1.1%)	
버라이어티쇼		50분 (12.7%)								
퀴즈/게임		50분 (12.7%)							60분 (1.6%)	60분 (1.6%)
교육/학습	100분 (25.3%)	20분 (5%)			75분 (27.3%)				1575분 (42.6%)	60분 (1.6%)
계	225분 (56.9%)	170분 (43.1%)	600분 (92.3%)	50분 (7.7%)	275분 (100%)		375분 (100%)		3100분 (83.8%)	600분 (16.2%)

에서는 주말에 단 한편도 편성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반면에 EBS는 주중과 주말에 있어서도 다양한 장르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어린이·청소년 대상 애니메이션 제작 국가별 현황분석

공중파방송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중 애니메이션은 방영 전에 수입국이나 제작국가에 대한 언급이나 명시를 하고 있지 않아, 어린이·청소년은 국적을 모른 채 시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과정에서도 국적을 파악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프로그램 홈페이지와 직접 방송국이나 제작자들과의 확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방송위원회의 자료(1996, 1997)에 따르면, 공중파 방송국의 수입 애니메이션은 제대로 국적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만화심의 결과를 기초로 분석한 수입 구성비는 당시 일본(60.1%)>미국(21.9%)>한국(7.7%)>영국(5.6%)>프랑스(4.3%) 순으로 나타나 일본과 미국 애니메이션 수입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물론 애니메이션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높으나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일본과 미국에 편중된 프로그램을 수입하고 있었던 97년 방송위원회의 분석에 비해, 2002년 봄 개편 이후에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자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EBS를 제외하고는 소수 국가에 편중되어 애니메이션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성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석대상인 현재 방영 중인 총 애니메이션 33편 중, 국내 제작이 9편(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8편(24.3%), 일본 5편(15.2%), 영국 4편(12.1%), 캐나다 3편(9.1%) 그리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각각 1편(3.0%)이었으며, 기타로는 한국과 미국의 합작품이 1편(Small Potatoes)으로 나타났다.

각 채널별로 살펴보면, KBS1의 경우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이 지난 방송위원회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전무하였으며, 교육방송인 EBS가 15편 중, 13편을 해외 애니메이션 편수로 채우고 있어 의존도가 86.7%로 가장 높았으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수입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영국, 프랑스에 집중적인 의존도에서는 탈피하였으나, 아직도 국내 제작 프

로그램이 단 2편으로 교육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입 프로그램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공중파 채널들이 그간 의존해 왔던 일본의 프로그램은 단 한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2는 총 애니메이션 6편 중, 미국 3편, 국내 제작 2편, 일본이 1편으로 비율 면에서는 수입의존도가 66.7%로 나타났으며, 수입국에서는 미국이 수위를 차지했다. SBS는 총 8편의 애니메이션 중, 일본 애니메이션이 3편으로 편성되어 있어, 공중파 전 채널의 편수 합계인 5편의 일본 애니메이션 중 60%를 방송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3편과 동일한 편성비를 보이고 있어 오히려 교육 채널에 비해,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방영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송 위원회(1997a)의 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SBS가 편수에서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편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업방송으로서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높은 비율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MBC는 총 4편 중 국내 제작 프로그램이 2편으로 수입의존도는 가장 낮은 50%를 보이고 있다.

〈표 10〉 공중파방송의 애니메이션 국내/해외 제작 비율

단위: 편(%)

국가 채널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스페인	기타	해외의존도
KBS 1	·	·	·	·	·	·	·	·	·	·
KBS 2	2	1	3	·	·	·	·	·		4/6 (66.7%)
MBC	2	1	·	1	·	·	·	·		2/4 (50.0%)
SBS	3	3	2	·	·	·	·	·		5/8 (62.5%)
EBS	2	·	3	3	1	1	3	1	1	13/15 (86.7%)
계	9 (27.3%)	5 (15.2%)	8 (24.3%)	4 (12.1%)	1 (3%)	1 (3%)	3 (9.1%)	1 (3%)	1 (3%)	24/33 (72.7%) (100%)

또한 <표 11>에서 나타나듯이, 공중파방송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총 방송시간을 비교 하면, 애니메이션 총 방송 시간 1,850분 중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의 방송시간이 1,560분으로 81.4%를 차지했으며, 국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은 290분으로 18.6%를 차지하고 있다. 각 채널별 방송 시간 비율은 편수에서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EBS가 총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 중, 수입 애니메이션이 1,135분으로 93.8%로 역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KBS2가 320분 중, 260분인 81.2%를 수입 애니메이션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SBS가 275분 중, 175분으로 63.6%, 그리고 MBC가 120분 중, 60분인 50%로 역시 해외 수입 애니메이션을 가장 적게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공중파방송의 애니메이션 국내/해외 편성 비율

단위: 분(%)

채널 비율	KBS 1	KBS 2	MBC	SBS	EBS	계
전체 방송시간	.	320 (100%)	120 (100%)	275 (100%)	1,135 (100%)	1,850 (100%)
국내 제작	.	60 (18.8%)	60 (50%)	100 (36.4%)	70 (6.2%)	290 (18.6%)
해외 제작	.	260 (81.2%)	60 (50%)	175 (63.6%)	1,065 (93.8%)	1,560 (81.4%)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애니메이션의 수입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특성상 EBS를 제외하고도 아직도 40%의 애니메이션을 미국과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방송 시간도 80% 이상을 수입 애니메이션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미 이는 수차례 많은 여론을 통해 지적되어 온 바 있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수입 프로그램이 어린이·청소년들이 즐겨 보는 애니메이션임을 고려할 때, 특정 국가 중심의 편성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특정 국가의 문화와 정서를 일방적이며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에

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에 알맞은 바람직한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늘려 나갈 뿐만 아니라 편성시간에 있어서도 국내 애니메이션의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야겠다. 그럼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은 자신의 문화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자신들의 이미지를 반영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소속감과 자부심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공중파방송의 장르별 집중 편성 현황

방송 채널별 장르의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공중파 채널의 KBS2, MBC, SBS에서 애니메이션 장르가 수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에 KBS1은 다큐멘터리, EBS는 교육/학습 장르가 수위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KBS1, MBC에서 교육/학습 장르가 2위를 나타내고 있고, 3위는 거의 모든 채널에서 매거진과 다큐멘터리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장르는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 교육/학습, 그리고 다큐멘터리와 매거진 장르가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 공중파방송의 장르별 집중 편성

채널	1순위	2순위	3순위
KBS 1	다큐멘터리	교육/학습	매거진, 버라이어티쇼, 퀴즈/게임
KBS 2	애니메이션	드라마, 외화	매거진
MBC	애니메이션	교육/학습	매거진
SBS	애니메이션	인형극	.
EBS	교육/학습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6. 공중파방송의 애니메이션 국가별 연도 추이

지난 방송위원회 보고서와 이번에 분석된 애니메이션 수입 주요 국가별 추이 현황을 비교하면, 공중파 방송에서는 95년부터 97년까지 전반적으로 일본, 미국 그리고 영국에 편중된 의존도를 나타내었던 반면, 이번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일본보다는 미국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국내 제작 프로그램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공중파방송의 애니메이션 국가별 연도 추이

채널 \ 연도	95년	96년	97년	2002년
KBS	미, 일, 프, 영,	일, 미, 영	일, 미, 영	미, 일
MBC	미, 일, 프, 영,	일, 미, 프, 영	일, 미, 호	일, 영
SBS	미, 일, 프	미, 일, 프, 영,	일, 미, 프,	일, 미

7. 장르별 프로그램 내용분석

텔레비전이 어린이·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에 노출되는 양적인 정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텔레비전이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텔레비전에서 재현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포장되어 그들에게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전달되는가 하는 것이다. 텔레비전에서 전개되는 이야기,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등장인물의 역할, 재현하는 폭력성과 선정성, 특정집단의 고정관념, 상황적인 묘사 등이 이를 시청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포함하여 내용분석을 하

였다. 그러나 이를 위해 모든 프로그램의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되나, 본 연구에서는 각 장르별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주제, 전개과정, 등장인물, 상황묘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개의 시퀀스로 구성되어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뉴스, 시사, 정보 등을 전달하는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것을 매거진 장르로 분류하여 EBS의 〈요리 조리 광광〉과 MBC의 〈내 친구들의 세상〉을 분석하였다. 〈요리 조리 광광〉은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내용을 주제로 매회 하나의 제목을 정하여 방영되는 프로그램이다. 분석된 회에서는 “빛나는 옥수수”라는 제목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영양 간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재료의 원산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매거진 프로그램으로서 적절한 주제와 직접 요리과정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었고, 등장인물에서도 여자만 요리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탈피하여 남자가 직접 요리를 하는 등 성역할의 다양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화 중 본인이 아줌마에도 불구하고 아줌마로 불려지는 것이 싫어 계속 아가씨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점이 우리 사회의 아줌마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의 현주소를 암시하고 있는 듯했다. 또한 어린이 프로그램이지만 진행자의 표현력과 목소리에서 지나친 변조와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지적된다.

또한 MBC의 〈내 친구들의 세상〉은 전체 학생수가 128명의 시골학교 교장선생님과 우정과 사랑을 소개하면서 학교를 놀이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모범적인 학교생활과 사제간의 존경과 사랑으로 화기애애한 어린이들의 생활을 그렸으며,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초등학교 내에 있는 자연 동식물 학습장에서 체험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경험해 보는 주제를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거진 프로그램은 생활 속에서 어린이·청소년에게 정보와 뉴스 등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주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식물과 채소로 영양가 있는 요리를 할 수 있고 편식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또한 학교생활에서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기존의 인식과는 다르게 사랑과 존경으로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다만, 진행자나 나레이션이 지나치게 수준 이하의 얘기를 한다거나, 어린이에게 편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용어들을 사용한 점은 어린이에게 선입관이나 편견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자연, 과학, 시사, 인물 등을 대상으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장르로는 KBS1의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 MBC의 〈자연은 살아있다〉, 그리고 EBS의 〈TV 전기문 나의 부모님〉을 분석하였다. 동물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는 한결같이 나레이션을 통하여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의 생활을 자세하게 보여주었는데 호랑이의 출산 및 번식방법, 늑대들의 생태와 무리생활을 그리면서 자연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하지만 먹이를 사냥하기 위한 지나친 공격성, 동물의 사지가 절단된 장면, 불에 태워지는 사람의 모습 등 장면 하나 하나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지나치게 잔인하고 공포를 자아내는 장면들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발달과 정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는 자연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되고 있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 외국에서 수입된 프로그램으로 정서와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작품으로 어머니의 일생을 그린 〈TV 전기문 나의 부모님〉은 공모에 당선된 작품을 토대로 재구성한 프로그램으로 과거 어머니의 일생을 통하여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계기가 되는 아주 인간적이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이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새삼 느끼면서 아름답고 훈훈한 가족관계의 애정과 사랑을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는 장면과 언어폭력이 자주 등장하며, 또한 일찍 재혼한 아버지와 새엄마에 대한 나쁜 감정을 지나치게 전달함으로써 최근 이혼과 재혼이 흔한 현실에서의 잘못된 인식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새엄마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딸 밖에 없다는 이유로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의 소중함을 정당화하면서 남존여비의 이데올로기도 드러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는 일상생활의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적으로 전달하는 장르의 특성으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있어 중요한 장르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EBS의 드라마 〈돌아온 그린맨〉과 〈춤추는 소녀 와와〉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어린이·청소년 드라마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내용과 주제는 인간적인 우정과 사랑, 권선징악, 환경보호, 인간관계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돌아온 그린맨〉의 경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무공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 박사가 환경오염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악당들에게 납치되어 주인공인 그린맨이 박

사를 구한다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악당들의 잔악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전개하면서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조로 항상 선의 편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주제 및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춤추는 소녀 와와〉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과거로 간 와와가 그라비타 일당에게 납치되면서 인류의 위기를 그려내고 있다. 이 드라마도 역시 미래 인간의 사이보그화를 막기 위해 싸우는 와와와 이를 방해하고 저지하려는 일당들과의 선과 악의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권선징악의 교훈을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력과 잔인함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어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장인물에 있어서는 선을 추구하는 인물은 온화하고 예뻐며, 반면에 악을 추구하는 인물은 추악하고 바보스러우며 잔악하게 생겨 인물의 편견을 강하게 심어주는 경향이 있다.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서의 등장인물은 그 인물 자체를 나타낸 다기보다는 그 인물을 통하여 이데올로기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은 등장인물을 통하여 동일시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위에 분석된 드라마에서의 등장인물은 선과 악을 행하는 성역할에서의 남녀 구성비는 〈돌아온 그린맨〉과 〈춤추는 소녀 와와〉에서 악당 역할의 수에서 남자가 약간 많았으나, 일반적으로 남녀의 구성비가 비슷하게 나타나 성역할의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승패를 폭력으로 풀려고 했다는 점에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무력과 권력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일반적으로 취학 전 아동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상력과 정서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표현 방식을 갖춘 애니메이션 장르의 주제나 내용면에서 드라마와 유사한 선과 악, 평화, 우정, 사랑, 꿈 등 인간적인 가치와 상상력 등을 키워주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분석된 SBS의 〈해로와 토레미〉의 주제도 역시 권선징악으로 이야기구조는 해로 일행이 썰 곳을 찾아 어느 마을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도둑으로 오인받으나, 진짜 도둑이 밝혀지면서 마을주민과 합세하여 도둑들을 물리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야기 구조로 보면, 평범하고 선과 악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애니메이션이다. 등장인물은 모두 동물로 선과 악으로 나뉘어 설정되어 우리에게 친근하고 유순한 동물들을 선한 역할로, 반면에 추악하고 무서운 동물들을

악한 역할로 동일시하여 어린이들에게 선입관과 편견을 자아낼 수 있다.

또한 EBS의 <내친구 아서>의 주제는 친구 간에 우정과 사랑을 다루는 것과 책을 많이 읽자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이야기, “진정한 친구”는 말썽쟁이 티미와 토미 중 토미가 아프자 도라와 에밀리는 티미를 위해 친구 토미의 역할을 대신해 준다는 우정어린 이야기로 친구 간에 사이좋게 지내며, 친구가 힘들어할수록 더욱 더 도와줘야 한다는 교훈적인 이야기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이야기, “환상의 비디오”는 도서관 책을 많이 읽자는 교훈적 내용을 담은 이야기를 주인공인 아서가 뮤직 비디오로 직접 만든다는 이야기이다. 둘 다 교훈적이며 인간적인 주제로 이야기 구조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등장인물들의 지나치고 불손한 행동과 이국적인 분위기로 이질적인 문화를 지나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색상과 빛들이 지나치게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로 하여금 신체적 장애 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EBS의 <용용나라로 떠나요>는 사람과 만화인물이 같이 출연하는 것으로 이야기구조는 주인공인 에미와 그의 남동생인 맥스가 용용나라의 장기사장에 참석하여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동물과 인간 사이에 사이좋은 관계를 통하여 동물사랑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추악한 동물과 사랑스런 동물과의 지나친 편견을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다.

위에서 분석된 애니메이션의 공통점은 이야기구조에서 모두 교훈적인 이야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선함과 악함을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등장인물들은 의인화된 동물이나 다른 사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물에 대한 선입관이나 편견을 지나치게 주고 있다. 애니메이션은 드라마처럼 현실적인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직접적인 동일시가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매체적 특성을 이용하여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면은 특히 어린이의 인지적 발달과 성격형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은 선과 악의 대결구조에 권선징악으로 이루어져 악당들에게 승리하기 위해 폭력이 등장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폭력의 경우 장면의 신체적 폭력, 선정성 뿐 아니라 언어폭력이 나타나며 이는 어린이에게 모방심리가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니메이션의 지나친 폭력은 나쁜 영향으로 미칠 가능성이 많다. 선정성 문제는 최근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의 노출이 심해지고, 신체적 접촉 장면이 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노골적인 선정적인 자세나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지나친 외국 애니메이션의 방영으로 우리 문화와는 맞지 이질적인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겨누며 지적 능력 함양이나 교육 등을 위한 장르로 흥미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KBS의 〈도전 골든벨〉과 EBS의 〈퀴즈 천하통일〉을 분석하였다. 두 프로그램 모두 진행자가 주어진 문제를 내면서 순서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나, 〈퀴즈 천하통일〉은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두 팀으로 나누어 각 팀 남자 5명, 여자 1명이 팀의 경쟁을 유발하며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개인뿐 아니라 팀의 단결도 중요한 점으로 작용하면서 팀 간의 승패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KBS의 〈도전 골든벨〉은 특정한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100명의 학생들이 50번째 문제를 맞출 때까지 최후의 1인이 남아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50번째 문제를 푸는 학생이 골든 벨을 울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골든 벨을 올리면 개인적인 영광 뿐 아니라 학교의 자랑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경쟁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협동과 우정어린 응원을 통해 애교심과 우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를 푸는 중간 중간에 학생동아리의 공연, 응원가, 선생님과의 협동 등 학교를 소개하면서 오락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간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남부 고등학교를 순방하며 문제를 푼다는 점에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참여 의식 및 애교심을 유발시키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두 프로그램 모두 퀴즈 프로그램이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퀴즈 천하통일〉은 오히려 개인 간 또는 학년 간 경쟁을 더 치열하게 유발시켜 승부의욕을 지나치게 나타내고 있다. 3학년과 2학년의 대결에서 고학년이 지면 얼굴표정과 행동이 즉각적으로 흥분하면서 달라지는 상황이 초래되어 지나친 경쟁으로 어린이들의 승부근성을 부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 학년 1명씩이 대표로 나오는데 여자는 6명 중 1명으로 소수를 차지하고 있어 똑똑한 학생이 남자가 많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두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진행자가 어색한 말과 행동을 사용하여 어린이·청소년들의 수준에 오히려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도전 골든벨〉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장기자랑을 통하여 선정적인 행동을 보이며 선생님의 참여 코너도 지나치게 선정적일 때도 많다.

어린이·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적과 정서적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적 내용

을 다루는 장르로, KBS1의 <TV 유치원 하나 둘 셋>과 EBS의 <딩동댕 유치원>를 분석하였다. <TV 유치원 하나 둘 셋>은 1982년 9월 첫 방송 이후 6,000회 특집으로 뮤지컬을 방송하였는데, 한국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로 빼어로와 공주님의 결혼식에 거울요정의 초대를 받아서 간 보경이가 겪는 상황을 뮤지컬로 나타냈다. 이야기 구조는 빼어로와 공주의 결혼으로 세상을 춤과 노래로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나, 심술마녀의 등장으로 어렵게 된다. 그러나 거울요정의 도움으로 행복의 구슬을 찾아 떠난다는 이야기이다. 역시 권선징악과 사랑의 이야기로 어려운 상황이라도 착하고 어질게 살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특집 뮤지컬이라는 타이틀 때문인지 등장인물들의 의상과 춤들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며, 거울요정의 변신도 너무 화려하고 색상과 불빛이 지나쳐 어린이들의 인지와 정서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악한 배역으로 나타난 심술요정의 목소리와 과장된 웃음과 같은 지나친 행동도 문제가 있다.

또한 EBS의 <딩동댕 유치원>은 매회 일정한 포맷을 갖고 있으며, 교육적인 측면으로 친구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웅변을 하도록 교육시키는 방법과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영어로 풀어가며 친숙하게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코너, 키키편 체조를 통하여 노래에 맞춰 체조를 하는 것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주로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교훈적이라기보다는 교육과 학습위주로 이야기를 풀어가며 등장인물에서는 사람과 인형의 탈을 쓴 사람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남녀 역할에 있어서는 여자가 선생님 역할을 주로 하며 사람의 역할은 여자가 많고 인형의 탈을 쓴 역할에서는 남자가 많았으나, 일반적으로 성역할의 비율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장되고 화려한 장면들이 많아 어린이들에게 현실과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장르와 관계없이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각 장르에서 등장인물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지난 방송위원회(1997)의 보고서와는 다르게 남자인물과 여자인물의 구성비에 있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는 있었으나, 역할과 이미지에 있어서는 아직도 성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약하고 여린 역할은 아직도 여자의 역할로 표현되고 있으며, 악당을 물리치는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은 대부분이 남자의 몫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나치게 인간보다는 인형, 로봇이나 다른 사이보그 등을 이용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인간관계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경

쟁심이나 부도덕한 점을 부각시켜 성장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있다.

둘째, 장면에 있어서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과 섬광들이 나타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화려한 의상을 입었다거나 변신하는 과정에서 불빛과 섬광 등이 지나치게 눈을 현란하게 하고 있다. 셋째, 아직도 어린이·청소년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서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하고 잔인한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동물의 생활상을 그린 다큐멘터리에서도 잔인하고 포악한 장면들이 거침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의 폭력성과 잔인함에 무력함을 느끼게 하여 건전한 의식과 판단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주제와 내용면에 있어서 지나치게 교훈적으로 권선징악을 통하여 교훈적인 면을 강조는 하나, 너무나 이분법적인 승패를 유도하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심을 조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폭력적이며 잔인한 장면을 표출시켜 어린이·청소년으로 하여금 지나친 경쟁심과 힘과 폭력의 악용 가능성을 지나치게 유도하고 있다.

V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주간편성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된 기간의 주간 편성표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들은 첫째, 이른 아침 어린이들이 많이 시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시간대에 채널별로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주중 어린이 프로그램은 아침 7시 45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TV 유치원 하나, 둘, 셋>이 오직 KBS1에만 편성되어 있으며 다른 채널에는 전무한 상태였다. 물론 이른 아침 시간대에 어린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감안하더라도 오전 시간대에 특정 대상별 어린이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오후에는 4시 30분부터 6시 35분까지 취학 전 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시간대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른 채널에도 중복 편성되어 어린이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오후시간대에 있

어서는 오전시간대보다는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이 늘기는 하였으나, 채널 간 장르의 중복 편성을 비롯하여 소수 장르를 집중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S1의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 KBS2의 〈어린이 뉴스탐험〉, MBC의 〈뽀뽀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애니메이션으로 한 장르의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 문헌(방송위원회, 1995, 1995)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주된 시청 시간을 평일 오후 7시 - 9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분석된 편성표에 의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EBS를 제외하고는 그 시간대에 다큐멘터리나 퀴즈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이 KBS1에서 일요일 저녁 7시 10분에 방송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청소년 주 시청 시간대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BS는 채널 특성 상, 이른 아침 시간대는 취학 전 어린이 프로그램을, 오후에는 초등학교, 저녁시간대는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심의 규정에 가족 시청시간대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대하여 어린이 시청시간대, 청소년 시청시간대 등을 따로 정하여 대상별 프로그램 편성과 다양한 장르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정임(1996)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에는 ITC의 가족시청제도를 정하여 21시를 분기점으로 하여 이 시간 이전에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저해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시간대를 설정해 놓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입법청원을 위한 〈어린이 텔레비전법〉에서도 어린이 시청시간대를 16시-19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15시-18시까지를, 가족시청시간대를 19시-22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18시-22시까지를 제안하고 있다.

둘째, 어린이·청소년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주중보다는 주말에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공중파방송은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주중에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편성시간(공중파: 84.4%)을 주말에 늘리면서 균형적인 편성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주말에는 각 채널별로 시청률 등을 감안하여 시간대와 관계없이 성인용 드라마를 주로 재방송 형태로 방송하고 있어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말 KBS1과 KBS2의 몇 편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제외한다면, 주말 시청시간이 거의 성인용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이라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말에도 시간대별

로 어린이·청소년 대상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프로그램 편성량과 장르의 다양성 문제: 편성비율과 장르별 쿼터제

분석 대상이 된 공중파 방송은 5,395분으로 전체 방송 시간 대비 1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실제 교육 채널인 EBS를 제외하면, 3%-8%정도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선진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중과 주말 편성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은 EBS를 제외하고, 주말과 주중 비율이 14.9%와 85.1%로 주중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BC와 상업방송인 SBS는 주말에 한 편도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주말에 시청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중파 방송에 있어, 전체 방송시간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전체 방송시간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있어 전체 방송시간에 대한 편성비율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할 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시청시간대에서 일정량 이상 유지해야 하는 심각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프랑스 공영채널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전체 방영시간의 10%-20%를 할애하고 있는 것과 미국의 경우, 특히 16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주당 3시간 방송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어린이·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공중파방송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장르별 편성현황은 본 연구에서 분류한 9개의 장르 중, 애니메이션이 전체의 34.3%를 차지하며, EBS를 제외하면, 애니메이션 장르에 더욱 편중된 현상(43.2%)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커다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KBS2의 경우, 공영방송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은 공영방송이나 민영방송을 막론하고 애니메이션이 가장 높은 편성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장르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장르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도 시간대를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선택권의 측면에서 편성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민영, 또는 채널간에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한해서라도 경쟁적인 편성이 아닌 보완적인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을 통하여 그들의 눈높이로 그들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장르를 개발하여 애니메이션이나 학습의 프로그램보다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사, 정보, 뉴스 프로그램 등 일상생활과 친근하고 다정다감한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전달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장르의 시도와 연구개발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매거진 스타일의 프로그램은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사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르로 제작비도 저렴하게 제작될 수 있다. 또한 대상별, 연령별 특성을 감안하여 그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 1990년 <어린이 텔레비전 기준법>에 따라 어린이 시청 시간대에 특정 분야 및 유형의 프로그램을 집중하여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둔바 있다. 즉, 장르별로 의무방송시간제를 적용하여 특히 어린이 시청시간대에는 총 방송시간의 의무비율 뿐 아니라 장르별 다큐멘터리, 드라마, 미취학용 프로그램 등을 쿼터제로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법 제69조 제3항에 따르면, “주시청시간대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으나 이는 어린이·청소년 시간대에 국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방송시간 중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뿐만 아니라, 현재 전체 방송시간 대비 보도, 교양, 오락과 국내 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장르로 제한된 장르별 쿼터제를 어린이·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맞춰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도 특별히 적용할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은 오락 뿐 아니라 교육, 정보, 뉴스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식과 그들의 감성적, 지적 능력을 키워주는 발달 과정에 도움이 되는 장르가 고르게 편성되어야 한다. 그 결과, 현재 애니메이션과 교육/학습 장르에 집중적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을 어린이·청소년 시청시간대에 장르별 쿼터제를 실시하여 다양한 장르의 편성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로서 어린이·청소년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시키며, 그들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자부심을 키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3. 프로그램의 국내/해외 수입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표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있어 애니메이션 수입의 존도는 여전히 높으나, 기존의 일본과 미국에 편성된 프로그램을 수입하고 있었던 97년 방송위원회의 분석에 비해, 2002년 봄 개편 이후에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순으로 나타나 한국의 자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1998년 문화관광부에 의해 정책대안으로 실시된 국내 애니메이션의 의무방영제와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애니메이션의 국내 제작비율을 고시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재방, 삼방 편성으로 인해 편성비율의 증대만으로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판단을 내리기에에는 성급하다. 현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은 KBS와 MBC는 45%이상, 그 외의 다른 공중파는 42%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수준에 미달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및 편성비율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공중파의 경우, 애니메이션의 수입존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특성상 EBS를 제외하고도 아직도 40%의 애니메이션을 미국과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방송 시간도 65% 이상을 수입 애니메이션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내 제작 비율에 있어서 22.3%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국내 제작이 확대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작비가 적은 수입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청소년 편성 시간을 메우는 현상과 특정 국가의 수입 프로그램으로 한정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장르와 내용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국가나 필리핀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자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의 지나친 프로그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린이·청소년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수입 프로그램을 일정량으로 제한하여야 되며, 또한 특정 국가의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한 국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수입을 일정량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할 것이다.

방송법에 의하면,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에 있어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의 고시 비율 이상

을 편성해야 하며, 또한 다양한 국제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특정한 국가의 제작물, 즉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것을 월간 방송시간의 100분의 60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편성비율에 관한 언급은 없다. 물론 가칭〈어린이 텔레비전법〉에서는 외국의 한 국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3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 시간대를 기준으로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대비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비율을 적용시키는 것과 또한 특정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도 역시 총 방송시간에서의 비율 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시간대에서의 일정비율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 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일반적으로 장르와 관계없이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나친 오락과 흥미위주에서 벗어나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주제를 다루어 하며, 또한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결과보다는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여 어린이·청소년으로 하여금 판단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이야기구조로 구성되어야 하겠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인간관계처럼 정의롭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 둘째, 사회의 긍정적인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등장인물에 있어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겠다. 실제적인 인구통계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어린이·청소년들이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야겠으며, 직업, 연령, 선악 등을 표현하는데 있어 성별, 인종 등을 고려하여 부정적인 이데올로기가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나친 가부장적 내용이나 일반적으로 명령하는 권위주의적인 이데올로기 전달을 피해야 하겠다. 셋째, 어린이들로 하여금 동물, 인형, 로봇이나 다른 사이보그 등을 이용하여 어떤 경쟁심이나 부도덕한 점을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인간관계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성장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조성시켜야겠다. 따라서 지나친 인간외적인 대상을 상대로 이야기를 풀어어나가는 것을 되도록 피해야 하겠다. 넷째, 장면에 있어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과 섬광들이 나타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현란하고 사치스러운 표현은 자제되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어린이·청소년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서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물의 생활상을 그린 다큐멘터리에서는 잔인하고 포악한 장면들이 거침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어린이·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의 폭력성과 잔인함에 무력함을 느끼게 하여 건전한 의식과 판단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텔레비전 수상기에 V-chip을 장착하여 어린이·청소년을 유해내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내용분류에 따른 연령단계별 표현강도(intensity)를 표시하고 있다(방송위원회1997 b).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등급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등급제의 고지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령별등급제 뿐 아니라 시간등급제와 내용등급제를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VII. 맺음말

다른 어떤 미디어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텔레비전은 분명 다른 어떤 시청자들보다 성장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강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방송의 시작을 경험하는 현실에서 종래의 세대에게 미쳤던 영향은 작금의 세대에게 미치는 효과와는 정도에서 크게 다를 수 있다. 텔레비전이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은 학자를 비롯하여 관련업계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졌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첫 방송을 시작한지 반세기가 넘었고, 특히 유아 대상의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방송제작진들이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고, 과거에 비해 외형적으로 세련되고 정교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총 방송시간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확대시켜야 될 것이며, 특히 어린이·청소년 시청시간대를 좀 더 확대 조정하여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엄격한 의무비율 편성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장르 집중과 지나친 해외 의존도를 막기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장르 규제를 확대 적용시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도 적용시킴으로써 현재 애니메이션에 집중되어 있는 장르에서 탈피하여 우리 문화에 맞는 다양한 장르 개발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엄격히 제한하여 편중된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시켜야 될 것이다.

셋째,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뿐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그들에게 다양하고 건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다매체 다채널 체제에서 텔레비전은 시청자에게 수백 개의 채널 선택권을 제공하는 반면, 각 프로그램간의 경쟁이 지금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채널들은 상업적인 성격으로 더욱 강하게 무장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치명적으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형성되는 어린이·청소년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구세대의 형식과 내용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상업성만을 고려한 나머지 시청률을 우선시하는 일반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제작되어야 할 것이 분명하다.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은 상업성보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오락문화를 제공해야 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이나 프로그램 등급제,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관련법, 특히 입법 청원과정에 있는 가칭 '어린이 텔레비전 법' 과 같은 규제들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강제적인 규제나 법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먼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져야 할 때 인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준 (1996). 「청소년 집단의 TV프로그램 수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 남신덕 (2001). 「어린이 대상 TV프로그램 편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광주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 방송위원회(1993).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 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 방송위원회 (1995). <텔레비전과 어린이에 대한 세계회의>, 방송위원회.
- 방송위원회 (1996). <우리나라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의 추이>, 방송위원회.
- 방송위원회(1997a). <텔레비전 주시청 시간대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 방송위원회(1997b).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에 관한 종합연구>, 방송위원회.
- 방송위원회 (1998). <불어권 청소년(12-17세)의 TV 시청형태>, 방송위원회.
- 방송위원회 (2001). <다매체 다채널 시대 편성정책 연구>, 방송위원회.
- 신현진 (1996). 「유아의 TV시청과 성격특성과의 관계」, 석사논문, 성균관 교육대학원.
- 안정임 (1995). 「한국 텔레비전 편성변화에 대한 분석적 고찰」, 『방송연구』, 겨울호.
- 하윤금 (1997).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선정성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 운동본부 (2001). <(어린이 텔레비전법) 입법청원을 위한 토론회>자료.
- 한국방송개발원 (1997).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선정성 표현에 관한 연구>.
- 홍석경 (1997). <한국 어린이 프로그램 현황분석과 발전정책 연구>, 방송위원회.
- Adler R. P. & Faber, R. J. (1980). "Background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patterns," In Adler et al(eds), *The Effects of Television Advertising on Children: Review and Recommendations*, Rextington Books, Rextington Mass, pp.14-15.
- Himmelweit, N, T. (1958). *Television and Chil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ramm W., Lyle, J. & Parler, E. (1961). *Television in the Lives of Our Children*, Stanford University Press